

“자서전 쓰면서 지난 삶 생각해 보는 기회 가져 좋았어요”



전남어촌특화센터 안테나숍 개장식 서구 Y-MART 물류도매유통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안테나숍 개장식이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Y-MART 물류도매유통센터 앞에서 열렸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정희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장,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김성진 영암시장 회장, 정경태 무안 구로어촌계장, 이희환 여수 안포어촌계장, 용양배 해남 송호어촌계장, 김홍일 (주)피슈데이 대표, 그 외 어촌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올해 여수 안포 피조개, 해남 송호 전복, 무안 구로 낙지 등 원물은 물론 전남의 수산물로 만든 우수한 가공제품까지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안테나숍은 여수 안포마을, 해남 송호마을, 무안 구로마을 등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안포마을의 판로 개척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도 Y-Mart 용두점과 본점 등 2곳에서 안테나숍을 운영해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부터는 OEM(주조자상표부착)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공제품을 포함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로 만든 가공제품도 판매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센터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 안테나숍 참가 어촌계는 모두 3곳이며, 내년에는 함평 석두어촌계, 신안 한운사치어촌계, 여수 소경도어촌계 등 3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안테나숍을 통해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며 “전남의 다양한 수산물과 다양한 가공제품이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5·18민주화운동 작전적 이해' 교육

광주일보는 최근 5·18민주화운동의 작전적 이해를 주제로 자체 사내교육을 가졌다. <사진> 특전사 출신 이성춘(북한학 박사) 송원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5·18을 군사적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자료 은폐와 왜곡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5·18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군 작전적 어떻게 세워지고 이뤄지는지 미리 알고 접근해야 한다”며 “작전 체계를 숙지하고 있으면 왜곡된 자료를 만나더라도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항공지도 등을 활용해 전일빌딩 헬기사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항공사진을 보면 헬기가 광주에 진입할 때 광주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군 입장에서는 광주교, 전일빌딩, 전남도청 등 주요거점 장악을 통해 광주 진입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또,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의 특징과 신군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렸다.

한편, 이 교수는 동국대에서 군사협상분야 최초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방부·육군본부 정책홍보실, 강원도지사 국방협력관 등을 역임하고 육군 대령으로 지난 2012년 전역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 출판기념회 갖는 서구청 자서전 쓰기 참가 어르신 12명

“자서전을 쓰는 동안 나의 지난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글 쓰기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남남(여·71)씨는 지난 5월부터 전문 강사의 지도와 7명의 작가들의 도움으로 자서전 ‘그 세상 참 아름다웠지’를 완성했다.

“서구청 덕분에 자서전을 완성했어요. 특별한 기회였죠.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도움을 받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남남 씨는 서구청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자서전 쓰기에 참여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자서전 쓰기는 서구청이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손과 사회가 공유하고 책으로 인생을 정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다. 서구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며 12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강노섭(71)씨는 ‘초원은 잡초가 자란다’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잡초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굴곡 많은 시대를 관통하며 누

서구 거주 65세 이상 공개 모집
지난 5월부터 전문가 등 지도받아
평범하고 진솔한 인생스토리 완성



구나 겪었을 법한 특징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실감나게 구성했다.

장문자(여·77)씨의 자서전은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장씨의 자서전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학출신의 엘리트로서 살아오면서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요조숙녀로 성장한 과정이 담겨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5월부터 1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와 7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을 진행했다. <광주시 서구청 제공>

서구는 자서전 출판에 기념하기 위해 15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17 서구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자서전 쓰기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가족, 친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축하공연으로 참여 어르신들의 전원합창, 시낭송, 장기자랑(품바, 마술), 색소폰 연주, 참여자 소감발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출판된 자서전은 ‘하늘나라로 간 천

사’(김경호·72), ‘자녀들에게 피어난 나의 푸른 꿈’(고영화·여·78), ‘돌 틈 사이로 전해준 이슬의 행복’(이명자·여·77), ‘갑사로 행복을 얻은 바보이야기’(박동재·77), ‘들꽃 인생의 은은한 향기’(이규연·74), ‘모든 것은 기적이었네’(박혜숙·여·68세), ‘공부하는 즐거움 보람있는 인생’(장봉화·70), ‘세상의 촛불과 소금이었으면’(김명순·여·76), ‘시련 속에서 핀 꽃말을 행복이었네’ (이명옥·여·68) 등 총 12권이다. /전문기자 e6621@kwangju.co.kr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서구민 한가족 후원금 4000만원

필립에셋(대표이사·회장 엄일석·원목 두번째)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시장 임우진)를 방문해 ‘서구민 한가족 나눔 후원금’으로 4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후원금은 희망플러스 소원성취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엄일석 회장은 “저 역시 힘든 시절을 겪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쓰여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우진 시장은 “지역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며 “단 1원의 예산 낭비 없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훌륭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필’(泌·반드시), ‘립’(立·설)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대전·대구·전주·순천 등 8곳에서 비상장주식을 운영하는 회사다. 선진경영기법으로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필립에셋(대표이사·회장 엄일석·원목 두번째)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쑤시엔위 총영사-언론인·학자·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쑤시엔위(孫顯宇) 총영사와 광주·전남기자협회 장필수 회장 등 언론인,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 국제협력관, 지역 대학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호남지역에서의 한중 교류 발전 방향과 한중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주광주총영사관 ‘쑤시엔위 총영사-언론인’ 간담회

중국주광주총영사관은 14일 광주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쑤시엔위 총영사-언론인·학자·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쑤시엔위(孫顯宇) 총영사와 광주·전남기자협회 장필수 회장 등 언론인,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 국제협력관, 지역 대학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호남지역에서의 한중 교류 발전 방향과 한중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날 마무리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의미와 이에 따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이를 한중 교류발전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쑤시엔위 총영사는 발제를 통해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 진입 ▲중국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등을 꼽았다. 또 달라진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는 “신형 국제관계 건설 추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이라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쑤시엔위 총영사는 “좋은 이웃은 금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중국 속담처럼 그동안 중한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다”며 “후호 교류와 협력 상생은 시중일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융합연구센터 돼지 심장실험 3000건 돌파

전남대학교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사진)가 심장병 연구에 사용되는 돼지 심장 실험 3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세계 최다 실험기록이다.

1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센터는 1996년 전남대 의과대학연구소에 설립된 돼지 심장실험 센터가 국내 최초로 돼지심장 실험을 한 뒤 지난 1월 3000번째 실험을 했다. 단일기관 기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실험 횟수라는 게 전남대병원의 설명이다.

센터는 특히 돼지심장 실험 관련 논문 1300편, 특허 출원·등록 62건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지금까지 총 20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심혈을 이용하고 있다.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상동맥 스텐트를 돼지심장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산화에 성공해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심장혈관 스텐트 개발, 심혈관계 신약개발 등을 위한 연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는 특히 돼지심장 실험 관련 논문 1300편, 특허 출원·등록 62건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지금까지 총 20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영걸 대한안과학회 회장 밝은광주안과 고문 위촉

대한안과학회 박영걸(72·사진) 회장이 밝은광주안과 고문으로 위촉됐다. 박 회장은 전남대학교병원 처장, 한국 사시·소아 안과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및 안과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박 회장은 “밝은광주안과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광주안과는 지난 2009년 개원 후



3D스마일·라식·라섹 등 시력 교정술, 백내장, 녹내장, 노안, 망막 수술 등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활동 및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이형성(전 서구동장)·김복희씨 장남 권철(네티스 광주·전남지사장)군 고경희(전 국회의원비서)씨 장녀 조수민양=25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피앤제이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동창회

▲2017 복성인 한마음송년음악회=11월 25일(토) 오후 4시 모교강당 010-9948-4867.

▲정흥 용산초등학교 제 51회 동창회=11월 25(토) 오후 1시 서울 사당역 14번 출구 제주북동 010-3114-8998.

▲재경 정흥 용산중학교 제 10회 동창회=11월 25(토) 오후 6시 서울 사당역 13번 출구 정당은 010-2363-0124.

알림

▲제회 송지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18일(토) 낮 12시 영암아크로CC 문의

010-3618-1460.

▲동래진주정씨 팔열부문화 정유재란 제 7주갑(420년) 향사=15일(수) 오전 11시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818-3 모향사. 월야농협 앞 오전 10시 출발. 문의 010-8581-5198.

▲청주한씨시조(위양공)시향봉행안내=18일(토)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광주 상록회관 앞 오전 6시10분, 7시 출발. 문의 010-3634-6343.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20일(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롯데백화점 건너편 동서여행사 2층 옆 종친회 사무실.

▲일가정암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

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해 무료 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음택,수택,나경/입향론,비결명당,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문의 010-3609-8117.

▲정충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감독 010-2684-4490.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작자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자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

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빙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김두병씨 별세 김장복·복록·연자·미향·미희씨 부친상 윤순옥씨 시부상 황춘우·고재필씨 방부상=발인 16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參加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10호 故자윤복 남(남/85세)	301호 故김봉채 남(여/92세)		
子/子婦 : 차주영/구민혜, 수영/노숙향, 광영, 박영/나순영 孫 : 차용환, 미나, 상욱, 상준, 명환, 상민, 수민, 민지	子/子婦 : 김인환/강우경, 인선/신명자 女/婿 : 김상주, 정주, 양주, 경주/최유식, 신주/유성길, 최주/영향선 孫 : 김홍재, 정현, 현철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영암청량	• 연락처 : 227-4381		
401호 故강훈식 남(남/81세)	402호 故박미순 남(여/56세)		
子/子婦 : 강현민/이은미, 현수/민정호, 현석/최연 女/婿 : 김희연/박도영 孫 : 강우석, 우영, 강민수, 박해영, 수영	子/子婦 : 박현삼/조연애, 현진/김민정 女/婿 : 박순희, 준영, 미연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영락공원(화장)	• 연락처 : 227-4383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영락공원(화장)	• 연락처 : 227-4314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